

##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 음주와 비행을 중심으로

김용석·박명숙\*

음주와 비행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이 연구는 비행과 음주는 공통 요인에 의해서 야기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며, 여러 요인 중에서 부모의 양육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총 497명의 중·고등학생이 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조사도구는 양육의 두 가지 차원인 정서적 유대와 감독, 청소년 비행, 청소년 음주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단계식 다중회귀분석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활용하여 종속변인이 음주이고 독립변인이 양육의 두 가지 차원과 비행인 회귀모델과 종속변인이 비행이고 독립변인이 양육의 두 가지 차원과 음주인 회귀모델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음주율과 비행률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비행성이 높고 주로 성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성비행, 폭행 등에 가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6%~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과 음주 간의 상관관계분석은 두 변인이 서로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두 가지 회귀모델 분석에서 비행과 음주가 서로를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이 아니라 양육과 관련된 요인이 음주와 비행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

---

\* 김용석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사회복지전공 조교수)  
박명숙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부모의 역할이 청소년 음주와 비행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 1. 문제 제기

최근에 실시된 조사들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음주를 하고 있으며(김용석, 1999; 서울 YMCA 동대문지회 청소년약물상담실, 1998; 윤혜미 등, 1999;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8), 심지어 문제성 음주(*problematic drinking*, 음주로 인해 심한 신체적,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 청소년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용석, 1999). 청소년 비행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들어 폭주족, 원조 교제 등과 같이 비행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비행정도도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행과 음주와 같이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된 문헌들은 청소년의 문제행동들은 서로 정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문제행동(비행)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다른 문제행동(음주 및 약물사용)도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높다는 의미이다. 특히, 청소년 비행과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사용은 대표적인 청소년 문제행동이기 때문에(Brook et al., 1997, 재인용), 비행과 음주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비행과 음주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비행을 청소년 음주의 원인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Collins, 1989; Fagan, 1990), 음주를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관점이 있다(Pernanen, 1991; Roizen, 1997). 이와 더불어 청소년 음주와 비행은 공통요인(*common factor*)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는데(Jessor, 1997; Otero-Lopez et al., 1994; White, 1993), 이는 예방의 특성과 일치하는 관점이다. 예방이란 다수의 문제에 공통적으로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risk factors*, 문제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말함)의 감소 또는 제거를 강조하고 그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Institute of Medicine, 1994). 청소년 비행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 청소년 음주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밝히고 이에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소년 비행과 음주에 공통적으로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이를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개입방안이 각각의 문제행동에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공통요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청소년의 비행 또는 음주 등 청소년 문제들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제로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김용석, 1999; 최화숙, 1991).

많은 연구들에서 이미 입증되었듯이, 청소년기에 있어 부모의 역할은 청소년의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일부 선행연구(Otero-Lopez et al., 1994)는 부모와 같은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 비행과 음주에 공통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소년 비행과 음주는 어떠한 공통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러한 공통요인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문제 행동(비행, 음주)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 음주와 비행의 심각성

청소년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음주와 비행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층에서 가정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 알코올임을 증명하고 있다(김용석, 1999; 서울 YMCA 동대문지회 청소년약물상담실, 1998; 윤희미 등, 1999;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8). 최근의 조사(서울 YMCA 동대문지회 청소년약물상담실, 1998)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80% 이상이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가 청소년층에서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으며, 흡연을 경험한 학생비율보다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거의 매일 음주를 하는 경우도 2.1%에 이르고 있으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8), 음주를 하는 학생들은 음주를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용석, 1999). 청소년기의 음주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대책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인다.

청소년 음주의 증가와 함께 청소년 비행 역시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비행의 정도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비행은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법률적으로 규정된 객관적 일탈행동뿐만 아니라, 공공의 사회적 가치체계를 침범하거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간주되는 부도덕 행위까지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구창모, 1992).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대검찰청의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6년도에는 1992년도에 비해 48.0%가 증가하여 전체범죄의 증가율 30.9%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표갑수, 1999, 재인용). 특히, 최근 들어 청소년 비행의 양상은 점차 난폭해지고 있으며, 비행의 동기를 살펴보면 뚜렷한 이유가 없거나, 또는 단순히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충동적인 범죄들이 많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최화숙, 1991).

## 2) 청소년 음주와 비행 간의 관계

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과 음주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은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모델은 청소년들의 비행은 음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Collins, 1989; Fagan, 1990). 비행을 일으키는 상황 자체는 이미 청소년들로 하여금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에 접근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즉, 불량교우집단 등 비행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행문화 자체는 음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또는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Otero-Lopez et al., 1994).

두 번째 모델은 음주로 인해서 비행이 야기된다는 것이다(Pernanen, 1991; Roizen, 1997). 알코올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판단력의 손상을 초래하며, 또한, 흥분이나 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유발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정당한 행위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든다(White et al., 1993). 또한, 알코올의 중독성과 관련하여 술을 사기 위해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서 비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Otero-Lopez et al., 1994).

세 번째 모델은 청소년들의 음주와 비행은 다른 공통변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Jessor, 1997; Otero-Lopez et al., 1994). 즉, 이 모델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음주나 비행 등의 문제행동은 그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공통적인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문제행위 자체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은 효과적이지 못

하며,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은 그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통요인에 대한 개입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Brook et al., 1998). 그러한 공통요인으로써 선행연구들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이성과 감성의 부조화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정서의 분열과 통합이 교차되는 과도기이다. 따라서, 이들의 충동과 갈등을 원조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적인 여건이나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은 심한 문제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가정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갈등과 충동을 수용하고 원조해 줄 수 있는 일차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 특히,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이 시기의 청소년들의 성격형성이나 행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3)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공통요인으로서의 부모의 양육태도

#### (1) 양육태도의 두 가지 차원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 차원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차원으로 분류되는데(Jang et al., 1997), 특히 청소년기에 이 두 가지 차원의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①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감정의 상호교류라고 할 수 있는데, Bowlby(1988)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는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owlby(1988)에 의하면, 심리적으로 불안 또는 혼란상태에 있거나, 행동상의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손상된 경험이 있거나, 또는 손상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심리적인 증상이나 물리적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Kendel 등(1982)은 부모와의 친밀성이 부족한 청소년일수록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Walker 등(1987)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인 유대감이 약한 청소년일수록 심리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urich 등(1985)은 약물중독에 걸려있는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심한 괴리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즉, 기존의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감이 청소년기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가정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행동에 대한 규범과 규칙을 내재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한 부모자녀 간의 유대감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내재화의 정도를 촉진시킨다고 보인다. Hirschi(1969)의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에서는, 아동들은 그들의 욕구가 부모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할 경우 아동들은 그들의 욕구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때문에, 부모 자녀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는 간접적인 사회통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과 관련해서, Hirschi는 어느 특정한 청소년이 비행을 범하게 되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비행을 강조하는 신념보다는 사회와의 유대 결여로 인하여 개인이 비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며, 그러한 사회적 유대 중의 하나로써 가정을 효율적인 척도로 보고 있다. 즉, Hirschi는 사회적 유대의 차원 중의 하나로 부모 자녀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비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부모와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유대관계 때문에 비행을 쉽사리 저지르지 못하게 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부모 자녀 사이의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서 자녀들은 건강한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위해 요구되는 자기수용(*self-acceptance*)이나 자기 효율성(*self-efficacy*)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Stice et al., 1993). 따라서, 청소년기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인 유대감은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나 행동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 ②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청소년은 신체적, 심리적인 발달상의 특징과 함께 성인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올바른 가치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위험지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지도와 감독은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을 의미하는 supervision, monitoring, control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세우고 자녀가 규칙에 순응하는지를 감독하며, 자녀가 문제행동을 일으킬 경우 이에 대해 일관성 있는 훈육을 적용하는 등의 가족관리/통제기술 (*family management/control strategies*)을 이용하여 자녀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문제가 되는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Bahr et al., 1998). 또한, 그것은 자녀가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포함한다. 즉,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은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이 친구를 선택하거나 또는 어떤 행동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영향을 미침으로써(Wasserman et al., 1996), 결국 자녀들이 문제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선택을 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의 행동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는데, Chilcoat 등(1996)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이 약물을 시작하는 연령이 빠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Loeber 등(1986)의 연구와 Snyder 등(1987)의 연구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이 청소년의 비행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보고했으며, Wassweman 등(1996) 역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수준과 자녀의 문제행동유발은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지도와 감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즉, 자녀가 문제행동을 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이라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다.

## (2)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의 비행과 음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공통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White 등(1993)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음주와 공격적인

행동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 두 변인 사이에 공유되는 다른 변인 때문에 음주와 공격적인 행동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가정했다. 실제로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음주와 공격적인 행동 사이의 관계는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한 청소년들의 음주와 공격적 행동 그 자체가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공격적 행동을 예측하는 강한 요인이 되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White 등(1993)은 공격적인 행동과 음주는 다른 제3의 요인에 의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가정환경적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Otero-Lopez 등(1994) 역시 2,02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약물사용과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약물과 비행 사이의 관계는 그 두 변인 자체의 관계보다는 친구나 가정환경 등의 변인에 의해서 보다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Stice 등(1993)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지와 통제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에 대해 지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할 때, 청소년들은 알코올이나 그 밖의 다른 약물에 중독되거나, 또는 다른 문제행동에 개입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aumrind(1993)와 DeBaryshe 등(1993)의 연구결과들 역시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거나 자녀를 지나치게 거칠게 다루는 부모,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부모,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들에 대해 무관심한 부모의 경우, 그들의 자녀들은 비행에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기의 부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위험수위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로서의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McWhirter et al., 1998). 그러나 외국에서 실시된 연구와는 달리 국내연구들은 청소년의 비행 또는 음주 등 청소년 문제행동에 개별적인 접근만을 시도하여왔으며(김숙경, 1992; 김용석, 1999; 서울 청소년 지도 육성회, 1989; 최화숙, 1992.),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통요인에 대한 관심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 3. 연구 목적

선행연구들은 결국 청소년기에 그들의 행동이나 가치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에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요소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청소년들의 음주와 비행 간의 관계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 특히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상대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4. 연구 방법

####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이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인천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이다. 조사대상자가 지역적으로 고른 분포를 이루도록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우선 지역을 학군과 교육구청별로 구분하였다. 인천지역의 고등학교는 학군에 따라 분류되어 총 3개 학군으로, 중학교는 교육구청별로 구분하면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3개의 지역으로 분류된다. 교사 2인의 협조를 얻어 각 지역별로 1개교씩 선택하였고, 각 학교에서 한두 학급을 선택하여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4학급으로 하여 총 497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2000년 2월초부터 일주일간 실시되었다.

#### 2) 조사도구

조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부모의 양육, 청소년 음주, 청소년 비행 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는 Hudson(1982)이 개발한 Child's

Attitude Toward Parent(이하 CATP) 척도를 사용하였다. CATP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예: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이고 나머지 6문항은 긍정적인 문항(예: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이다. CATP는 양육과 비행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Jang et al., 1997)에서 인용하였으며, 4점 척도인 번역본 CATP의 신뢰도는 .87로 양호하였다. 부모의 감독은 방과후나 저녁시간 또는 주말에 외출할 때 자신의 소재를 부모에게 알리는 정도를 묻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감독수준을 이와 같이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었다(김용석, 1999; Barnes 등, 1995; Peterson 등, 1995; Reifman 등, 1998). 번역본의 신뢰도는 .77로 원본의 신뢰도(.64)보다 높았다. 비행은 김준호(1996)가 청소년을 상대로 음란물과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을 사용하였다. 김준호의 연구에서는 비행에 음주와 약물사용과 관련된 항목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비행과는 별도로 음주를 주요 변인 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항들은 제외되었다. 밤 늦게 귀가, 폭행, 사창가 출입 등과 같이 경미한 비행뿐만 아니라, 비행성이 높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비행을 측정하였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에 0점이, ‘20회 이상’에 4점이 주어졌다. 음주는 한 달 동안 술을 1잔 이상 마신 빈도로 측정하였다.

### 3) 자료분석

단계식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이 이 연구조사에서 사용된 주요 자료분석기법이다. Cohen 등(1983)에 따르면 단계식 다중회귀분석은 여러 개의 독립변인들 중에서 종속변인의 변화량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독립변인을 우선적으로 회귀모델에 투입하고, 종속변인과 관계가 약하거나 거의 없는 독립변인은 회귀모델에 투입하지 않는 회귀분석이다. 따라서, 단계식 다중회귀분석은 회귀모델이 여러 개의 독립변인을 가지고 있을 때 종속변인과 관계의 강도가 큰 순서를 알 수 있으며, 단계에 따른 종속변인의 변화량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단계식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종속변인이 비행이고 독립변인이 양육의 두 가지 차원(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과 음주인 회귀모델(이하 모델 1)과, 종속변인이 음주이고 독립변인이 양육의 두 가지 차원과 비행인 회귀모델(이하 모델 2)

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경우 단계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종속변인인 음주와 비행의 변화량에 기여하는 순서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양육관련 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준다면 음주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비행이 음주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해서 양육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5. 연구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497명의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1>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보여 주고 있는데, 성별과 학년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1.4%, 여학생이 48.6%로 거의 비슷하였으며, 학년별로도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조사시기가 고등학교 졸업시기와 겹쳐진 관계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부터는 자료수집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학진학이나 사회로 진출하는 관계로 저학년 학생들에 비해 음주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부터 상당히 벗어나 있는 연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음주행태에 있어 다른 학년 학생들과는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들을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청소년의 음주행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 성	구 분	N	%
성	남학생	255	51.4
	여학생	241	48.6
학 년	중학교 1학년	98	19.8
	중학교 2학년	101	20.4
	중학교 3학년	93	18.8
	고등학교 1학년	92	18.5
	고등학교 2학년	112	22.6

2)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표 2〉와 〈표 3〉은 양육에 대한 결과로서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연구에서는 양육을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 차원과 감독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에 관한 11문항의 빈도분석결과(〈표 2〉)를 보면 모든 문항에서 조사 대상자는 자신과 부모님과의 정서적 유대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간섭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조사대상자가 거의 과반수(42.8%)에 이르고 있으며,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각각 27.8%, 32.4%로 다른 문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4점 척도로 측정된 정서적 유대의 평균(34.12)이 의미하는 것은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가 양호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유대(%)

문항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23.0	49.2	24.2	3.6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19.8	47.8	27.6	4.8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한다	17.3	39.9	35.7	7.1
부모님은 나를 매우 화나게 만든다	29.4	51.6	14.5	4.4
부모님은 내가 폭력을 휘두르고 싶게 만든다	63.3	28.2	5.3	3.2
부모님과 잘 지낸다	4.6	9.9	46.5	39.0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4.1	13.2	45.6	37.1
부모님이 참 좋다	3.2	7.5	42.0	47.3
부모님을 아주 존경한다	3.6	13.6	46.8	36.0
부모님은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4.0	19.2	42.8	33.9
부모님이 자랑스럽다	4.0	13.1	40.4	42.4
평 균	34.12			
표준편차	5.79			

〈표 3〉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방과 후 자신의 소재를 부모에게 보고하는 정도	4.6	16.9	36.6	29.2	12.7
주말이나 저녁시간에 외출할 때 어디에 가는지 부모에게 보고하는 정도	1.4	7.2	22.9	41.6	26.8
평균	7.13				
표준편차	1.78				

마찬가지로 부모의 감독도 정서적 유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평균값(7.13)이 중간값(6.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들은 부모로부터 보통 수준 이상의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자신의 소재를 부모에게 알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41.9%이고, 외출할 때 어디에 가는지 부모에게 보고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8.4%로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김용석, 1999)와 비교하여 볼 때 방과 후 자신의 소재를 부모에게 알리는 비율(41.4%)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외출시 부모에게 보고한다고 응답한 비율(51.7%)은 높게 나왔는데, 이는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60%가 조사당시 중학생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저학년일수록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는 조사대상자의 음주빈도와 비행에 관한 결과이다. 음주빈도의 평균은 .77로 조사대상자는 한 달 동안 거의 1회 정도 음주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4〉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 조사대상자 중 1회 이상 음주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25.3%로 4명 중 1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를 하였다.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1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는 5.1%, 매일 술을 마신다는 경우는 0.5%로 나타났다. 음주율이 낮은 이유는 고등학생들만을 조사한 기존 연구(김용석, 1999; 윤혜미 등, 1999)와는 달리, 이 조사에서는 중학생이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음주율이 낮게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비행은 1999학년도 2학기 동안의 비행여부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전혀 하지 않았다”를 0점, “20회 이상”을 4점으로 측정하였는데 비행의 평균은 음주

〈표 4〉 조사대상자의 문제행동

문제 행동	평균	표준편차
음 주	.77	2.66
비행	.73	1.39

빈도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인 .73이었다. 조사대상자의 42.5%가 9가지 비행 중 1가지 이상의 비행에 가담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비행률이 음주율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경비행에 해당하는 밤 늦게 귀가를 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 비행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대상자 중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패싸움을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6%와 1.6%였으며, 강간, 사창가 및 퇴폐이발관을 출입한 비율이 1.8%로 나타났다. 비행과 관련된 조사결과는 청소년들의 비행이 아직은 경미한 비행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비행성이 높고 성과 관련된 비행에 가담하는 청소년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 3)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변인들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s*)의 방향도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변인들간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양육관련 변인들인 정서적 유대와 부모의 감독은 청소년 음주와 비행과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관계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정서적 유대는 비행보다는 음주와, 부모의 감독은 음주보다는 비행과의 관계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유대와 부모의 감독은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가 강할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정서적 유대와 부모의 감독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음주와 비행과의 관계는 정적 관계로 음주빈도가 잦을수록 비행을 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음주와 비행 간의 관계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두 변인간의 관계 크기( $r=.19$ )는 다른 변인들간의 관계의 크기와 비교해 볼

〈표 5〉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변 인	정서적 유대	부모의 감독	비 행	음 주
정서적 유대				
부모의 감독	.37***			
비 행	-.21***	-.32***		
음 주	-.23***	-.20***	.19***	

주 : \*\*\* p < .000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회귀분석결과

연구의 핵심은 부모의 양육(정서적 유대, 감독)이 청소년의 음주와 비행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다른 독립변인(음주와 비행)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단계식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단계식 다중회귀분석은 여러 개의 독립변인 중에서 종속변인과 가장 높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독립변인을 회귀모델에 투입하며 종속변인과의 관계가 약하거나 없는 독립변인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이 연구의 경우 단계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독립변인이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음주이고 종속변인이 비행인 회귀모델(모델 1)과, 독립변인이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비행이고 종속변인이 음주인 회귀모델(모델 2)을 분석하였다. 두 가지 회귀모델을 단계식 다중회귀분석으로 하여 양육과 관련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이 연구가 다루고 있는 핵심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다.

〈표 6〉은 단계식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모델 1의 분석결과를 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 비행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음주빈도가 두 번째로 모델에 투입되어 비행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가 모델에 투입되었다. 부모의 감독은 비행을 10.7%를 설명하였고 부모의 감독과 청소년의 음주는 비행을 12.2% 설명하고 있으며, 청소년 음주만이 비행을 설명하는 정도는 1.5%로 나타났다. 세 개의 독립변

〈표 6〉 단계식 다중회귀분석결과

모 델	종속변인	단 계	독립변인	F	P 값	R <sup>2</sup>	R <sup>2</sup> change
모델 1	비 행	1단계	부모의 감독	49.832	.000	.107	.015
		2단계	음주	7.283	.007	.122	
		3단계	정서적 유대	4.786	.029	.132	
모델 2	음 주	1단계	정서적 유대	23.781	.000	.054	.018
		2단계	비행	8.140	.005	.072	

인이 공동으로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는 13.2%였고, 정서적 유대 단독으로 종속변인의 1.0%만을 설명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였다.

모델 2의 분석결과는 비행이 종속변인인 모델 1의 분석결과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종속변인이 비행인 회귀모델분석(모델 1)에서 영향력이 가장 낮았던 정서적 유대가 청소년 음주와 가장 관계가 밀접한 요인으로 밝혀졌고, 음주의 5.4%를 설명하였다. 비행은 청소년 음주의 1.8%를 설명하고 있다. 종속변인이 비행인 회귀모델(모델 1)분석에서 비행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부모의 감독은 모델 2에서 제외되었다.

〈표 7〉과 〈표 8〉은 두 모델을 성별과 학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성별로 구분한 분석결과를 보면, 두 모델에서 부모관련 변인이 비행과 음주에 제일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표 7〉의 결과를 〈표 6〉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남학생만으로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거의 유사하며 결정계수도 거의 유사하였다. 그러나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비행과 음주가 모델 1과 2에서 모두 제거되어 종속변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즉 청소년 비행과 음주와 관련해서 부모의 영향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강하다는 것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표 8〉은 조사대상자를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분류한 후 모델 1과 2를 각각 분석한 결과이다.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부모관련 변인만이 모델에 남고 비행과 음주 변인은 모델에서 제외되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중학생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델 1에서는 부모의 감독이 비행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고 설명력도 15.7%



〈표 7〉 성별에 따른 단계식 다중회귀분석 결과

남학생							
모 델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F	P 값	R <sup>2</sup>	R <sup>2</sup> change
모델 1	비행	1단계	부모의 감독	25.034	.000	.105	.027
		2단계	음주	6.609	.011	.132	
모델 2	음주	1단계	정서적 유대	13.152	.000	.058	.036
		2단계	비행	8.409	.004	.094	
여학생							
모 델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F	P 값	R <sup>2</sup>	R <sup>2</sup> change
모델 1	비행	1단계	부모의 감독	25.816	.000	.114	.029
		2단계	정서적 유대	6.786	.010	.144	
모델 2	음주	1단계	정서적 유대	10.095	.002	.048	

〈표 8〉 학년별 단계식 다중회귀분석 결과

중학생							
모 델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F	P 값	R <sup>2</sup>	R <sup>2</sup> change
모델 1	비행	1단계	부모의 감독	19.587	.000	.078	.025
		2단계	정서적 유대	6.568	.011	.103	
모델 2	음주	1단계	정서적 유대	8.699	.004	.036	
고등학생							
모 델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F	P 값	R <sup>2</sup>	R <sup>2</sup> change
모델 1	비행	1단계	부모의 감독	25.816	.000	.157	.075
		2단계	음주	17.629	.000	.232	
모델 2	음주	1단계	비행 정서적 유대	31.473 13.350	.000 .000	.147 .206	.059

로 높았으나, 모델 2에서는 비행이 음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설명력도 14.7%로 높은 편이었다. 〈표 6〉, 〈표 7〉, 〈표 8〉의 결과에서 부모관련 변인 이외에 비행 또는 음주가 제1 요인인 경우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만 나타났다. 중학생의 결과와 고등학생의 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연

령이 낮은 중학생의 경우보다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관련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이 그들의 문제행동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점차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요약하면, 부모의 감독과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가 전반적으로 비행과 음주를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밝혀져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문제행동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음주와 비행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음주율과 비행률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음주율은 조사대상자에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에 기존의 청소년 음주 실태조사 결과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의 비행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미한 비행이 대부분이어서 다행스럽게 생각되나, 비행성이 높고 주로 성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성비행, 폭행 등에 가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6%~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과반수 이상의 조사대상자가 부모와 양호한 수준의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감독도 어느 정도 받고 있어,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경우 균형 있는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음주와 비행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기존의 모델 중에서 비행과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공통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비행과 음주 간의 상관관계분석은 두 변인이 서로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회귀분석은 비행과 음주가 서로를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음주와 비행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음주와 비행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제시하

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개별적인 문제행위에 대한 분리된 접근보다는 청소년 문제행동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공통요인에 대한 접근이 보다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듯이,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장 중요한 공통요인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양육태도는 음주나 비행 등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방 또는 적어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즉, 부모가 청소년기의 자녀와 대화나 이해를 통한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발전시키고, 또한, 자녀들의 행동이나 활동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감독을 행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에 가담할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가정이 효과적인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자원 등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들 가정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여된 부분에 대해 사회적인 보완을 제공해주는 것은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개입방법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많은 부모들이 청소년기의 특성이나 청소년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법 등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효과적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자녀들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모임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부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결과는 특히 맞벌이 부부가정과 편부모 가정의 자녀들에게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방과후 자녀를 보호, 감독하는 가족기능의 상실은 맞벌이 부부가정은 물론 편부모 가정의 경우 더욱 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청소년이 방과후 과외수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방과후 특별한 활동이 없거나 방과후 집에 부모가 없을 경우 청소년은 비행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방과후 홀로 지내는 아동 및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방과후와 부모가 귀가하는 시간 사이

에 청소년 비행률이 가장 높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Nash et al., 1998). 가정이 청소년 문제행동의 최일선 제어장치(*frontline defense*)임을(Smith et al., 1997) 상기할 때, 사회복지기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부모의 보호와 감독을 대신할 수 있는 내용을 개발하여 포함시키는 것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대와 더불어 맞벌이 가정과 편부모 가정 등 자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하여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청소년들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청소년들의 음주와 비행을 설명하는 다른 요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청소년기는 또래집단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 또래집단을 포함해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들의 비행과 음주를 이해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인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음주만을 다루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는 담배, 환각제, 각성제 등 약물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비행의 범주도 좀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연구가 진행된다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참고문헌 ■

- 구창모. 1992. "스포츠참가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동향 및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3권 제4호(통권 제11호). pp. 70~92.
- 김숙경. 1992. "청소년의 약물사용과 비행실태."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 김용석. 1999. "청소년의 문제성 음주와 정신증상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지》 제7집. pp. 27~45.
- 김용석. 1999.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 음주와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제39호. pp. 103~127.

- 김준호. 1996. "음란물과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제 25 호. pp. 5~32.
- 서울 YMCA 동대문지회 청소년약물상담실. 1998. "청소년 유해약물에 관한 연구".
- 서울 청소년 지도육성회. 1989.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통해서 본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연구".
- 윤혜미, 김용석, 장승옥. 1999.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와 한국 고등학생들의 음주행위간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제 38 호. pp. 153~179.
- 최화숙. 1991. "청소년 비행의 가정환경요인과 가정환경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표갑수. 1999. 《아동·청소년복지론》. 청주대학교 출판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8.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결과." 《마약없는 밝은 사회》 13 호. pp. 6~8.
- Bahr, S. J., S. L. Maughan, A. C. Marcos, and B. Li. 1998. "Family, Religiosity, and the Risk of Adolescent Drug Use."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60(4). pp. 979~992.
- Barnes, G. M., M. P. Farrell, and S. Banerjee. 1995. "Family Influences on Alcohol Abuse and Other Problem Behaviors among Black and White Adolescents in a General Population Sample." in G. M. Boyd(ed.). *Alcohol Problems among Adolescents: Current Directions in Prevention Research*.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pp. 13~31.
- Baumrind, D. 1993. "The Average Expectable Environment is Not Good Enough: A Response to Scarr." *Child Development*. 64, pp. 1299~1317.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Brook, J. et al. 1997. "Drug Use and Delinquency: Shared and Unshared Risks Factors in African American and Puerto Rican Adolescen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8(1). pp. 25~39.
- Brook, J. et al. 1998. "Similar and Different Precursors to Drug Use and Delinquency Among African Americans and Puerto Rican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9(1). pp. 13~29.
- Chilcoat, H. and J. Anthony. 1996. "Impact of Parent Monitoring on Initiation of Drug Use through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1). pp. 91~100.
- Cohen, J. and P. Cohen. 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Collins, J. 1989. "Alcohol and interpersonal violence: Less than meets the eye." in M. Wolfgang(ed.). *Pathways to Criminal Violence*. CA: Sage Publication. pp.49~67.
- DeBaryshe, B. D., G. R. Patterson, and D. M. Capaldi. 1993. "A Performance Model for Academic Achievement in Early Adolescent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pp.295~804.
- Fagan, J. 1990. "Intoxication and Aggression." in M. Tonry & J. Wilson(eds.). *Crime and Justice*. 13.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pp.241~320.
- Frick, P. J., R. E. Christian and J. M. Wootton. 1999. "Age Trends i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Practices and Conduct Problems." *Behavior Modification*. 23(1). pp.106~128.
- Hirschi, Travis.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udson, Walter. 1982. *The Clinical Measurement Package: A Field Manual*. Homewood: IL: Dorsey Press.
- Institute of Medicine. 1994. *Reducing Risks for Mental Disorders*. Washington, D. C. : National Academy Press.
- Jang, S. J. and C. Smith. 1997. "A Test of Reciprocal Causal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Supervision, Affective Ties,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3). pp.307~336.
- Jessor, R., & S. Jessor. 1997. *Problem Behavior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NY: Academic Press.
- Jurich, A. P., C. J. Polson, J. A. Jurich and R. A. Bates, 1985. "Family Factors in the Lives of Drug Users and Abuser." *Adolescents*. 20. pp.143~159.
- Kendel, D. and M. Davies. 1982. "Epidemiology of depressive mood in adolesc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9. p.1205.
- Loeber, R., M. Stouthamer-Loeber. 1986. "Family Factors as Correlates and Predictors of Juvenile Conduct Problems and Delinquency." in M. Tonry & N. Moris(eds.), *Crime and Justice: An Annual Review of Researc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29~149.
- Nash, J. K. & M. W. Fraser. 1998. "After-Care for Children: A Resilience-Based Approach."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79(4). pp.370~383.
- McWhirter, J., B. McWhirter, A. McWhirter, and E. McWhirter. 1998. *At-Risk Youth: A Comprehensive Respons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Otero-Lopez, J. M. et al. 1994. "An Empirical Study of the Relations between Drug Abuse and Delinquency among Adolescent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4(4). pp. 459~478.
- Pernanen, K. 1991. *Alcohol in Human Violence*. NY: Guilford Press.
- Peterson, P. L., J. D. Hawkins, R. D. Abbott, and R. F. Catalano, 1995. "Disentangling the Effects of Parental Drinking, Family Management, and Parental Alcohol Norms on Current Drinking by Black and White Adolescents." in G. M. Boyd(ed.). *Alcohol Problems among Adolescents: Current Directions in Prevention Research*.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pp. 33~57.
- Reifman, A., G. M. Barnes, B. A. Dintcheff, M. P. Farrell, and L. Uhteg. 1998. "Parental and Peer Influences on the Onset of Heavier Drinking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9(3). pp. 311~317.
- Roizen, J. 1997. "Epidemiological issues in alcohol-related violence." in M. Galanter(ed.). *Recent Developments in Alcoholism*. 13, NY: Plenum Press, pp. 7~40.
- Smith, C. A. and S. B. Stern. 1997. "Delinquency and Antisocial Behavior: A Review of Family Processes and Intervention Research." *Social Service Review*. 71(3). pp. 382~420.
- Stice, E., M. Barrera, and L. Chassin. 1993. "Relation of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to Adolescents' Externalizing Symptomatology and Substance Use: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Curvilinear Effec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1(6). pp. 609~629.
- Snyder, J. and G. Patterson. 1987. "Family Interaction and Delinquent Behavior." in H. Quay(ed.). *Handbook of Juvenile Delinquency*. NY: Wiley, pp. 216~243.
- Walker, L. S., and J. W. Greene. 1987. "Negative Life Events, Psychosocial Resources and Psychophysiological Symptoms in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6. pp. 29~36.
- Wasserman, G., L. Miller, E. Pinner, and B. Jaramillo. 1996. "Parenting Predictors of Early Conduct Problems in Urban, High-Risk Boy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9). pp. 1227~1236.
- White, H., S. Hansell, and J. Brick. 1993. "Alcohol Use and Aggression among Youth." *Alcohol Health & Research world*. 17. pp. 144~150.

## Parenting as a Common Factor to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Focusing on Adolescents' Drinking and Delinquency

Kim, Yong-Seok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ark, Myung Sook (Sa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mmon factors that affect adolescents' drinking and delinquency. Previous studies have supported that parenting i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to explain adolescents' drinking and delinquency. For study, 497 adolescents from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in Incheon city, Korea, were recruited. Instrument for measurement consists of affective-tie and supervision regarding parenting, drinking, and delinquenc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as a main statistical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even though there is some association between drinking and delinquency, this study found that the most strong predictable variable in explaining adolescents' drinking and delinquency is parenting. That is to say, effective parenting can contribute to prevent adolescents's drinking and delinquenc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social services and programs to support effective parenting should be provided.